
감각의 확장,
전자시대 PHASE 01+02.
PHASE 01_2F
2021.11.30 —
PHASE 02_3F
2022.06.13 — 09.16
83
1939
2022
83rd Anniversary
프로젝트 갤러리

감각의 확장, 전자시대 PHASE 01+02.

83 1939 2022
83rd Anniversary

개막식
2022년 6월 13일(월) 14:00
한양대학교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경험과 기억으로 되돌아본 전자시대
–
1902년 한국에 전화가 개통된 지 120년,
1932년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이 태어난 지 90년,
1939년 한양대학교가 건립된 지 83년,
그리고 1962년 한국 최초의 컴퓨터가 한양대에서 만들어진 지 60년.

2022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동력인 한양대학교에서
'감각의 확장, 전자시대'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층 기획전시실에서 박물관이 그동안 수집한
소장품을 소개하는 수장고형 전시를 선보인데 이어
2022년 6월에는 3층 기획전시실에서 귀중한 소장품을 기증해주신
기증자이자, 전자시대의 살아있는 역사인 4인의 인물을 통해
근현대사를 돌아보는 전시를 개최합니다.
한국 최초의 컴퓨터의 아버지 이만영 박사와 함께 해방 전후로
태어나 전자기기의 얼리어답터로, 국제 표준화의 연구자로,
엔지니어로, 변리사로, 예술가이자 창작가로 변신해온
이중근 · 이정성 · 최달용 세 분의 삶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전자시대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양대의 실용학풍을 통해 발전해온 전자공학, 정보통신 등
관련 학과의 실습 교육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감각의
확장을 연구하는 최신의 성과들도 소개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어떠한 감각과 인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상상하고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양대학교박물관장
안신원

한양대학교 박물관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UNIVERSITY MUSEUMS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문화체육관광부